

역사인물 복원으로 한국사 빈터 메운다

좌파 지식인 연구서 출간 활기...근현대사 왜곡 바로잡는 계기돼

그동안 우리의 역사속에서 언급이 회피되거나 기록되지 않던 그 이름이 복자로 기입되면서 냉대를 받아왔던 좌파지식인들에 대한 조명이 최근들어 활발히 전개되면서 이들에 대한 연구가 전집이나 단행본의 형태로 다양하게 출판되고 있다. 그들은 당시의 역할이나 역사적 비중에 비해 정당한 평가는 고사하고라도 냉전의 논리에 갇혀 언급조차 금기시되었는데 80년대 중반 이후 완화되는 정치적 분위기를 타고 역사연구자들의 주요연구대상으로 부각, 그 성과가 빠르게 책으로 묶이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은 역사연구에 결코 가볍지 않는 의미를 던지고 있다.

최근 출간되었거나 곧 출간예정인 것으로는 「몽양여운형전집」(한울) 「취보백남운전집」(이론과실천) 「인정식전집」(한울) 「민세안재홍전집」(지식산업사) 등 유족들이나 해당인물의 연구를 학위논문으로 준비하고 있는 연구자들에 의해 꾸며진 전집류와, 「발굴한국현대사인물」(한겨레신문사)와 「한국근현대사의 라이벌들」(가계·역사비평사) 등 일반인 대상의 단행본들이 부분적으로 나와 있거나 곧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

주요 저술 중심으로 당시 표기대로 전집 구성

모두 3권으로 기획, 먼저 그 첫째권을 내놓은 「몽양여운형전집」은 몽양이 생전에 남긴 연설문이나 평론, 회상기 등과 신문이나 잡지에 실렸던 몽양관련 기사들을 한자리에 모은 것으로, 진보적 민족주의자이면서도 융합의 묘를 중시했던 탁월한 정치인 몽양의 사상과 인간적 면모를 살필 수 있게 했다. 1권에 이어 곧 출간될 2,3권에는 3·1운동관련 주요활동과 계획, 국내진공계획과 봉안 이상춘의 구상, 해방후 남북협상과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몽양의 죽음 등 주로 측근과 생존자 또는 직·간접 관련자들이 남긴 2차자료 성격의 증언들을 채록해 엮거나(2권), 몽양의 독립사상, 건국노선, 사회사상 등이 오늘의 한반도 현실에서 어떻게 재조명될 수 있는가를 여러 측면에서 평가한 글이 수록될 예정(3권)이다.

해방공간에서 교육자 정치가로 활동하다 월북후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지내고 지난 79년 86세로 사망할 당시 노동당중앙위원 서열 46위에 올라 있던 역사경제학자 백남운의 전집도 모두 4권으로 기획, 현재 그 가운데 마지막권인 네번째권이 나와 있다. 4권에는 「남조선의 현정치정세」 「좌우합작에 대한 기

일제시대나 해방공간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으나 월·남북 등의 이유로

역사기록에서 누락되어야 했던 인물들에 대한 연구작업이 활발히 진행, 전집이나

단행본의 형태로 묶어나오고 있다.

그동안 냉전논리에 갇혀 평가가

미뤄져왔던 이들에 대한 연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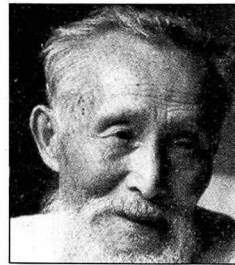
우리 근·현대사의 빈곳을 메운다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사회전」 「조선노동자이동문제」 등 48년 월북 이전까지 당시의 신문 잡지에 실었던 정치·경제·역사관련 시론성격의 글을 모으고 있다. 아직 미출간된 1권은 그가 1933년에 펴내 「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 조선사회의 발전법칙을 과학적으로 규정한 한국사학사상 하나의 획을 그은 사건」이라 격찬받았던 「朝鮮社會經濟史」가, 2·3권에는 「朝鮮封建經濟史(上)」가 번역되어 분제되는데, 이로써 당대 최고의 마르크시스트 역사학자로 불리었던 취보의 전모가 처음으로 일반인 앞에 선보이게 된다.

또한, 「반봉건론」의 핵심이론가로 손꼽혔던 인정식의 전집도 모두 5권으로 기획, 출간을 앞두고 있다. 「조선중앙일보」 기자로 활동하며 민족주의진영의 개량운동을 통렬히 비판했던 저널리스트로, 또 열혈한 사회주의자였던 그는 1939년경 '전향'하여 친일경력을 남겼고 6·25동란중 행방불명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현재 3권과 5권이 편집을 끝내고 내년 3월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 1권은 「조선의 농업기구 분석」 등 그가 썼던 단행본과 전향전까지 썼던 농촌문제관련 기사들을, 2권은 전향후 월북하기까지 잡지에 기고했던 130여편의 짤막한 글들의 모음으로 구성돼 있다. 이밖에 「조선의 토지문제」 「조선경제순보」 등 좌파잡지에 기고했던 논문과 좌익이론에 관한 번역서로 4·5권을 구성, 이로써 조선농업경제학의 기초를 세우고 농촌경제문제를 마르크스주의 이론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는 당대 최고 수준의 인물로 꼽혔던 인정식의 사상적 편력을 살필 수 있게 된다.

이들 전집들이 근·현대사의 사상적 연원을 해명하기 위한 실마리로서 다시 '연구'되어야 할 대상으로서의 자료적 가치가 높다면, 한겨



김철수.
백남운.
인정식.



여운형.
서태석.
인재홍.

레신문사에서 발간한 「발굴한국현대사인물」과 역사문제연구소가 엮은 「한국근현대사의 라이벌들」은 평범한 일반독자들을 위한 '인물한국사'이다.

이중 「발굴...」은 지난 89년10월부터 매주 금요일 한겨레신문에 같은 이름으로 연재되어 독자들로부터 「역사공부를 다시 해야겠다」는 소리가 나올 만큼 커다란 반향을 불러모았던 시리즈 기사를 단행본으로 묶은 것이다. 「역사기록에서 누락된 인물을 복직시키고, 그릇 평가되거나 잘못 알려진 인물은 바로잡고, 현대사의 전개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의 개인사를 재조명한다」는 원칙아래 씌어져 그중 이미 나왔던 34명분을 한데 묶어 1권으로 펴낸 데 이어 나머지분도 2·3권으로 출간된다.

30년대 좌익운동의 신화로 불리는 이재유, 철도노동자에서 조선공산당의 당수에게까지 올랐던 차금봉, 암태도의 농민운동을 이끌었던 서태석, 조선인으로 처음 하늘을 난 비행사 안창남, 조선형평운동의 상징적 인물 장재필, 세치 혀로 온장안을 웃음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조선 최초·최고의 만담가 신불출, 유신의 폭압정치하에 재야의 대통령으로 불렸던 장준하 등 주로 식민시대 공산주의활동을 했거나 해방공간에서 월북한 인사들이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지만 예술가와 과학자 종교인도 망라하는 한편, 비교적 최근의 인물까지도 수록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한국근현대사의 라이벌들」은 진보적 학술운동단체인 역사문제연구소가 지난 4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열어 성황을 이뤘던 같은 제목의 한국사강좌 내용을 묶은 것이다. 「김구와 김원봉」 「송진우와 안재홍」 「이승만과 여운형」 「정인보와 백남운」 「박헌영과

김일성」 등 입장을 달리했던 두 인물간의 정치노선이나 사상을 대비함으로써 한 사람을 통한 일방적인 이해를 벗어나 보다 객관적으로 각 인물의 활동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일반독자 위한 '인물한국사' 류도 선보여

근현대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겼던 인물들에 대한 연구가 시도된 것은 비단 최근들어서만의 일은 아니다. 민족주의 사학이 정책적으로 장려되던 60년대말과 70년대 정인보, 김구, 신채호, 박은식 등의 자서전이나 전기, 회고록 등이 다수 출간되었고 그것은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었다. 그러나 최근의 인물연구는 우리의 근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에도 좌익활동이나 월·남북 등으로 평가나 기록에서 제외되었던 인물들을 복권시켜 재조명하고 있다는 데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전집으로 완간되었다 해서 연구가 완료된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지금까지 문혀져 있었던 자료를 발굴하여 햇빛을 보게 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이를 기초로 계속해 수정·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겨레신문에서 연재되었던 인물시리즈에는 한사람씩 따로 연구대상이 되어야 할 만큼 비중있는 인물도 적지 않다. 이제 시작단계인 이 작업을 통해 근현대사의 비고 왜곡된 부분이 제대로 메워지게 될 것이다」고 안병욱(성심여대) 교수는 의의를 설명했다. 현재 출간된 책 외에도 이론과실천에서 백남운전집의 후속작으로 백남운과 동시대를 살았던 좌파경제학자 안병태와 김광진의 전집을 구상중이며, 살아있는 조선공산주의 운동사로 일컬어졌던 김철수 연구도 동덕여대 이균영교수에 의해 준비중이다.

— 정혜옥 기자